

헌금 전 이야기

올바른 관계 안에 하나 되기

인종평등선교주일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헌금 전 이야기

건강한 관계 안에 하나 되기

본 헌금 전 이야기는 누가복음 16:19-31을 본문으로 한 “올바른 관계 안에 하나 되기”라는 설교를 바탕으로 합니다. 목회자가 다른 설교를 준비하거나 다른 성경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 헌금을 권유하는 독립적 이야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사로와 같은 이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권을 가진 이들이 더 좋은 교육 기회와 영양이 풍부한 식사 및 양질의 의료 혜택을 누리는 동안, 대문 밖에 누워 허기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원이나 도구의 부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향을 끼칠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연합감리교회가 가진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함께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단 내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여 인종평등선교주일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기독교 자원봉사

단체 및 지역사회개발사업과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위해 쓰일 것이고, 이는 사랑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버밍엄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당신 자신이 되기까지,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내 자신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또 당신은,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내 자신이 되기까지,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당신 자신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된 이들의 은사와 은혜에 투자함으로써 그리스도와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의 명령에 응답한다는 확신 가운데, 관대하게 후원해주세요.

